

“섬 자연·문화·사람 이야기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

여수세계섬박람회, 박람회 성공 개최 홍보 활동 돌입 조리 명장 안유성·배우 원기준 등 명예 홍보대사 위촉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는 최근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리조트 그리니지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18인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행사는 박수관 조직위원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명예 홍보대사로는 배우 원기준과 민도희, 방송인 윤택, 막방 유튜브 여수인 니와 여행 유튜브 채코제, 덤프트럭 운

전기사 유튜브 덤순이, 트로트 가수 김다현과 트로트 신동 한수정, 조리 명장 안유성, 카피라이터 정철, 대만인 모델 마이클, 미국인 크리스 존슨을 비롯해 여수 영취산 진달래 홍보모델 6인이 위촉됐다.

특히 '섬의 가치 동반'을 상징하는 대형 퍼즐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홍보대사들이 각자의 퍼즐 조각을 맞추며 수많은 섬이 지닌 가치를 하나 모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명예 홍보대사들은 향후 다양한 홍보

콘텐츠 참여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박수관 조직위원장은 “위촉된 명예 홍보대사 여러분의 영향력과 진정성이 더해져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섬의 자연과 문화, 사람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조직위원회 역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일원에서 개최되며, 세계 30여개 국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여수=송원경 기자 swg3318@gwangnam.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는 최근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리조트 그리니지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18인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 '범군민 유물 기증 운동'을 진행 중이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범군민 유물 기증 운동 특별전 개최로 군민 참여 분위기 확산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 '범군민 유물 기증 운동'을 진행 중이다.

기증 운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보존 환경이 열악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유물을 발굴해, 이를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관리하고 공공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증 자료는 지역 생활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산이다. 박물관은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기록화를 거쳐 이를 전시·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증자의 뜻과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되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 70점의 자료가 새롭게 기증됐다. 과거 1차 기증에 이어 올해 다시 기증에 참여한 사례도 있어 지속적인 기증 문화 확산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물관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중요한 운영 가치로 삼고 기증 증서 수여, 기증자

명예의 전당 운영, 박물관 주요 행사 초청 등 기증자의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은 연중 기증 자료를 접수하고 있다. 기증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학예연구팀(061-830-5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작은 물건 하나에도 그 시대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기증을 통해 개인의 기억이 지역의 역사로 이어지고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지난 3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고흥의 보물' 함께 있다. 박물관 2022~2024년 기증특별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기증이라는 나눔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가치와 의미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광주 서구청 펜싱팀, 협회장배 여자 단체전 '우승'

일반부 에페 결승서 경기도청 42-37 제압 김채린, 개인전 '동'...남자 단체전 준우승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제55회 협회장배 전국펜싱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다운, 김수현, 김채린, 정지운으로 구성된 서구청 여자 펜싱팀은 지난 18일 해남 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일반부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경기도청을 42-37로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

서구청은 8강에서 충북도청을 35-32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4강에서는 전남도청의 기권으로 결승에 안착했다. 결승에서는 경기도청을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확정 지었다.

개인전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김채린은 여자 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팀에

값진 메달을 보냈다. 김채린은 8강에서 김소희(경기도청)를 15-9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4강에서 신현아(화성특례시청)에게 7-8로 아쉽게 패하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서구청 남자 펜싱팀 또한 에페 단체전에서 준우승의 성과를 올렸다. 4강에서 해남군청을 45-32로 완파하며 결승에 오른 서구청은 경남체육회를 상대로 접전을 펼쳤으나 39-42로 패하며 아쉽게 정상 문턱에서 멈췄다.

이로써 서구청은 이번 여자 단체전 우승과 남자 단체전 준우승, 여자 개인전 3위 등 고른 성과를 거두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박광현 서구청 펜싱팀 감독은 “선수들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제55회 협회장배 전국펜싱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제공=광주 서구청

이 흘린 땀의 결과가 이번 대회에서 잘 나타나 것 같아 기쁘다. 여자 단체전 우승뿐 아니라 남자팀도 준우승을 거두며 팀 전체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우기를 이어 남은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북부경찰은 2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표창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광주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표창 은행원, 이상 징후 포착 신속 대응...신고포상금 수여

광주 북부경찰은 2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표창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한 외국인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해당 고객이 인출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고, 전산 조회 결과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연관된 정황까지 확인되자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신

속히 대응했고, 관련 피의자를 검거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범죄 예방이나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게시판

- 모임** ▲공군전우회 광주시지부 2026년도 정기총회=4월 28일(화)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 2층 갈비연. 광주·전남·전북 공군예비역 누구나. 문의 010-2115-0945.
- 일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 ▲구당침·뜸 수감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뜰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운세 (음력 3월 5일)

- 48년생 잠시 피하는 것이 살길이다
- 60년생 전체 흐름을 읽는다면 훨씬 유리하다
- 72년생 소유하는 것을 지켜야 할 시기
- 84년생 자신감이 필요할 때
- 96년생 성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 51년생 배우자에게 양보하고 다투지 말라
- 63년생 문서의 행운이 다가온다
- 66년생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75년생 총처리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 87년생 노력의 대가를 얻을 것이다
- 99년생 노력의 대가를 얻을 것이다
- 54년생 친척의 비보로 우울하겠다
- 69년생 숨겨진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운
- 78년생 시기가 아니라 의지의 유무가 관건
- 90년생 절대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 57년생 지나친 아집은 금물
- 69년생 활용 잘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 81년생 시간을 쪼개 쓰느라 애를 먹겠다
- 93년생 의외의 금전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 49년생 마음을 비우고 현재 것에 관리 잘 하자
- 61년생 대동소이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 73년생 기회가 왔으니 꼭 잡아라
- 85년생 앞날은 막힘 없이 탁 트여 너르다
- 97년생 혼자서는 외로우니 단결하라
- 52년생 고인스러운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
- 64년생 현재 갖고 있는 것까지 내어 줘라
- 76년생 중복된다면 과감히 정리하라
- 88년생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가 계속되어야 한다
- 55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다
- 67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 79년생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하기 힘들다
- 91년생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라
- 58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돈 거래를 하지 마라
- 70년생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겠다
- 82년생 모든 것 결정했으니 책임도 지어한다
- 94년생 어려웠던 속제가 풀리겠다
- 50년생 이득 볼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다
- 62년생 경쟁자와 동반하는 면모다
- 74년생 이상의 고인을 주의하라
- 86년생 생각을 확실하게 밝혀보라
- 98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 53년생 달갑지 않은 사람이나 소식이 온다
- 65년생 허탈해지는 날이다
- 77년생 자녀에게 행운이 따른다
- 89년생 목적했던 바가 두렵게 보인다
- 56년생 자기 확신에 치우치면 객관성을 잃는다
- 68년생 의도는 좋으나 흐름 약한 것이 아쉽다
- 80년생 부부 다툼이 이익이 없겠다
- 92년생 방향을 바꿔 보라
- 59년생 노파심은 버리고 잠자코 있으면 된다
- 71년생 약간의 손해가 큰 이익으로 다가온다
- 83년생 안 되는 것을 강행하면 부자가 따른다
- 95년생 늦지 않았으니 배워두고 보자